

빈집 활용 ‘4도3촌 병영스테이’에 살어리랏다

〈4일 도시 3일 농촌〉



강진군이 병영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빈집활용 지역재생 프로젝트, 4도 3촌 병영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진군 제공

구독자 3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최근 강진군 관련 영상 게시 3일 만에 조회 수 10만명을 돌파했다. 강진군 병영면에서 진행 중인 ‘빈집 활용 지역재생 프로젝트, 4도 3촌 병영스테이’에 참여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는 오진다(대표 김현우)’의 이야기다. 강진군 인구 3만2000명임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다. 강진군은 지난 9월부터 리모델링이 완료된 빈집 2곳을 활용해 지역에서 살아본 뒤 정착을 유도하는 ‘4도 3촌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4도 3촌 프로젝트’는 ‘4일은 도시, 3일은 병영면에서’를 생활하는 삶의 패턴을 말한다. 장·단기 지역에서 살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는 지역에 활력을 주는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 8월 입주자를 공개모집해 심사를 거쳐 3팀(4명)을 선정했다. 3팀은 △빈집에 관련된 영상으로 3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오지는 오진다’(김현우·정

태준) △서울에서 진행하는 지역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넥스트로컬에 참여해 강진군 특산물 여주를 활용한 특화상품을 만드는 ‘라라잇’(임고은) △강진산 쌀로 전통주를 빚는 청년양조인 ‘ABBF’(김휘은)가 그 주인공이다.

●MZ세대 유튜버가 전하는 강진군 이야기, 홍보 효과 특

‘오지는 오진다’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강진군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제작한다. 4도 3촌 프로그램으로 병영면에서 사는 이야기를 담은 시골살이와 강진군 문화관광지 홍보영상을 제작했고 조회수도 20만에 육박하고 있다. 지역명인, 빈집을 직접 리모델링 한 주민을 찾아 인터뷰하는 영상을 기획중이다.

●4도 3촌, 강진을 청년창업자 터전으로 만들다

서울에서 강진으로 온 ‘라라잇’의 임고은 대표는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여주를

9월부터 리모델링 빈집 2곳 활용 청년인구 유입 프로젝트로 운영

빈집정비·활력 등 일석삼조 효과 생활인구 도입 지역성장 성과도

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있다. 여주로 피클을 만들고 현재는 여주가 함유된 고추장을 개발하고 있다. 좋은 원물이 있는 청정 강진에서 제조시설을 만들어 직접 판매할 예정이다.

서울 성수동에서 전통주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ABBF’의 김휘은 대표는 강진군 친환경 쌀로 막걸리를 만든다. 병영면 농가와 협업해 딸기, 감 등을 가미한 전통주를 개발 중이며 완성되면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통주 빚기 체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생활·관계인구 도입 활성화 유도

4도 3촌 병영스테이는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일주일에 4일 동안 단순히 숙박만 하는 것이 아닌, 이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은 슈퍼에서 먹을거리를 구입하고,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한다. 청년들의 필수코스인 편의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르고,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기름보일러를 채울 등유를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한다. 이 모든 것이 병영면이 가져가는 경제 효과로 되는 것이다.

동료들과 가족들은 이들이 사는 ‘강진군 병영면’을 보기 위해 강진으로 온다. 부모와 형제·자매, 친구들이 다녀간다.

라라잇의 임고은 대표는 얼마 전 서울 청년 창업자들 10여명을 지역행사에 초

대해 손을 보냈고, ABBF의 김휘은 대표는 친구들과 함께 청년마을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청년들과 어울리며 또 강진에 올 날을 기약한다.

●관계인구로 출발해 마침내 지역정착 성공

4도 3촌을 기획해 운영하는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최근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개념이 확대되면서 인구유입 정책 또한 발맞춰가야 한다”며 “정주인구만을 생각한다면 타 지역과 차별성도, 지역만의 경쟁력도 없다. 강진으로 올 수요자 입장에서 ‘이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4도 3촌 병영스테이는 장·단기간 지역에 살면서 일거리와 커뮤니티를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자·일·공동체 등 ‘살아지는’ 조건을 만드는 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입주자가 아닌 ‘진짜 주민’이 되고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병영을 찾은 서울시 청년창업자들.



기계작업을 하고 있는 입주 청년들



리모델링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 청년들

구독자 36만명 보유 유튜버 ‘오지는 오진다’ 김현우 대표 “병영서 살고파”

청년층 지원 중간조직 큰 힘

빈집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오지는 오진다’를 운영하는 영상제작 회사 바바프로덕션 김현우 대표. 최근 실버버튼도 받았다. 빈집살이를 하고 있는 그의 얘기를 들어봤다.

-빈집이라는 콘텐츠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소소하게 많은 시도를 했다. 우연히 시골길을 테마로 잡고 시골집을 소개했는데 빈집을 소개할 때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선택했다. 그때만 해도 단순히 비즈니스 측면에서 결정했다.

-강진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

△나주에 분사가 있어 촬영차 자주 들렀던 곳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강진군 병영면에 근사하게 고쳐진 집이 있다고 소개시켜 줬

고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됐다.

-빈집에 직접 살아보니 어떤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빈집을 왜 좋아하는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허름한 빈집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니 가능성이 보였다. 진짜 살아보니 ‘아, 살아볼 만하구나’라고 생각했다. 나처럼 콘텐츠 제작자인 사람들에 더 가치있는 곳이다. 작업하다가 마당에 나와 근처 풍경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왜 위케이션을 선호하는지 몸소 느끼고 있다.

-‘4도 3촌’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은.

△무작정 일주일, 이주일 살기보다 덜 부담스럽다. 앞에서 말했듯 무형의 콘텐츠를 만드는 디지털 노마드로 정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간이 좋다.

-책임감이 덜 하다는 측면이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부담을 준다고 해도 거주지 이전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여기서 살면서 앞으로 일들을 계획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닐까 싶다. 청년들은 ‘잡’이라는 공간에 대해 소유하고 지키는 것보다 ‘머무는 공간’이라 생각한다. 주거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다. 일에 따라 집을 옮긴다. 책임감이 적은 것이 아니라 집에 대한 개념의 차이다.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시골(병영)에 청년이 오려면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솔직히 기본 인프라는 도시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럼에도 여기에 올 만한 시골만의 매력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여주고 병영에서 삶을 꿈꾸게 만들어야 한다. 시골살이 경험을 통해 선택권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10명이 경험해서 3명만 강진으로 온다해도 결코 손해 보는 일은 아니다.

청년들끼리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병영면은 청년 네트워킹이 구축돼 있어 도움을 받고 있다. 낯선 지역에서 포레 청년들과 공감대는 큰 힘이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을 포함해 새로 이주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다. 흔한 귀농·귀촌 상담센터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병영면은 그런 역할을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주고 있어 모든 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4도 3촌에 참여하지 석 달이 지났다. 남은 석 달은 어떻게 보내고 싶나.

△남은 석 달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지금처럼 시골살이와 강진군 영상을 찍고 다른 지역으로 가 빈집이 멋지게 변한 모습도 찍고 그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병영스테이에 만족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지냈으면 한다.

-목표가 있다면.

△원래 빈집을 사서 고치는 영상을 만드는 일이었다. 지금은 그 일을 병영에서 하고 싶다. ‘병영에서 빈집을 구해 직접 고쳐 사는 것’이다.

강진=김윤복 기자